

질서캠페인·환경지킴이 '앞장'

신행현장

승만부인회의 활동

서울 지하철 1호선 석계역과 성북역에서 월 1~2회 정도 "승하차 질서를 지킴시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합시다", "휴대폰 사용을 자제합시다" 등이 써 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 10여 명의 여성들을 만날 수 있다.

하나같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모습 탓인지 도시전철이나 철도청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듯이 없지만,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 이용객 이목을 누비며 안전운행 캠페인에 몰두하는 모습이 진지하기 그지없다.

이들은 바로 철도청성북사무소 소법우회(이하 법우회) 회원의 부인들로 구성된 '승만부인회' (회장 임매주) 회원들이다.

승만부인회는 정기법회, 교리공부, 단기출가 등을 통해 마음을 닦는 것에서부터 안전운행캠페인, 환경캠페인,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신행단체다.

지난해 1월 결성 당시 '내조하는 신행모임'을 표방했으나 결성 이전부터 회원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인근사찰이나 봉사현장에서 자주 만났던 터라, 활동은 '내조'에만 머물지 않았다. 가족들이 참여하는 정기법회나 교리공부 시간에 법우회 회원보다 부인회 회원들의 참

석들이 단연 높고, 캠페인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올 6월 경기도 양평 사나사주지회암 인근 용문산 계곡에서 실시된 환경법회도 승만부인회의 활동력을 그대로 보여준 행사였다. 이날 환경법회는 법우회와 함께 진행됐는데, 계곡을 청소하기 전에 승만부인회는 자체적으로 준비한 "환경을 살리고 더 이상 환경을 해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해 주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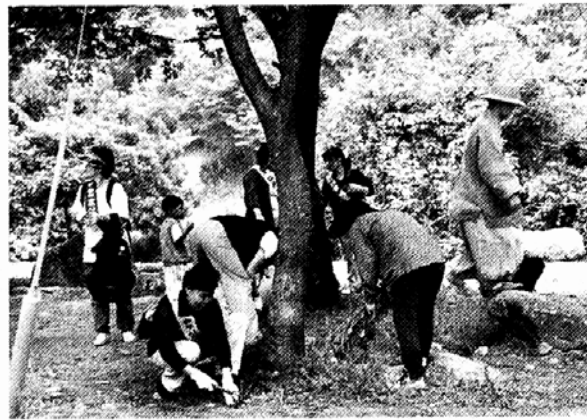
정기법회·단기출가 '꾸준'

소년소녀가장 돕기도

놀라게 했다.

이날 환경법회에 참여한 법우회 총무 정찬영 씨는 "계곡청소, 예불, 참회기도 등으로 진행된 환경법회는 승만부인회에서 주도했고, 동참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부처님 법대로 살 것을 서원하는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승만부인회는 소년소녀가장 6명에게 각각 매달 10만원씩을 후원한다. 당초 노원구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것으로 소년소녀가장을 도왔는데,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



승만부인회가 경기도 양평 사나사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신적 도움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회원들의 뜻이 모여 직접 찾아 보살피고 있다. 현재 매달 소년소녀가장의 집을 방문,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밑반찬이나 청소상태를 살피는 생활지도는 물론 교육관계와 진로선택 등 인생상담까지도 해주어 소년소녀가장들의 '엄마노릇'까지 해내고 있다.

승만부인회 임매주 회장은 "봉사면 봉사, 공부면 공부 어느 것 하나 뒤쳐지지 않는 신행단체로 발전하고 싶다"며 "그래서 회원들은 이러한 서원을 담은 '승만청규'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수시로 읽는다"고 말했다.

'승만청규'는 승만부인회 결성 당시 모임의 활동 목적이나 방법 등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승만청규에는 '얼 가지 서원'이 있는데, 이중

'마음으로도 받은 계를 범하지 않겠다', '재산의 축척은 나 자신만을 위해 하지는 않겠다', '고독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굶주린 사람, 홀로 남겨진 사람' 등은 승만부인회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대목이다.

승만부인회가 지금의 활동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이 청규에 따른 것이다. 임 회장은 따르면 서로 돕고 심부름도 대신해 주는 등 훈훈한 이웃사랑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싶다는 승만부인회의 원력이 하나로 모였으며, 환경정화 활동도 열심히 할 계획이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휴지등을 수집 판매해 공동기금을 조성, 좀 더 나은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a.com

주제가 있는 법문

"일종식 계율 명심하여 쌀 한톨도 소홀히 말라"

쌀 한 톨이 밥이 되어 우리의 입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쌀 한 톨 한 톨에 깃든 공덕이 일곱 근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과 옛 조사 스님들께서 후학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 메고 농약치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발이 분주히 힘들게 움직였을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님들은 반드시 오관계(五觀儀, 식사할 때 관하는 다섯가지 계를 살펴 자신을 반성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린 후에 공양을 합니다. 밥을 만든 공덕이 얼마나 되며, 이 음식이 온 곳을 깊이 헤아려, 나의 수행이 공양을 받을 만 한가를 깊이 살펴 반성하며, 탐욕에서



항적스님
해인사 지족암 감원

을 남기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이 오관계 사상에 의한 것입니다. 산사 수련회에 참석해 본 불자들은 스님들이 얼마나 음식을 소중히 대하는가를 발우공양을 통해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구국의 선봉에 섰던 사명스님이 묘향산 보현사로 참다운 법을 구하려 가던 중 절 입구 개울물에 콩나물 몇 개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스님은 시주물을 아끼지 않는 이 산중에 큰 스승이 있을 수 없다고 돌아서려 했는데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한 노승이 숨을 몰아쉬며 급히 내려와 떠내려가는 콩나물을 서둘러 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명스님은 콩나물을 건진 그 분이 바로 사산대사라는 것을 알고 일생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갖게 합니다. 현대의 질한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비만의 원인은 과다 섭취한 음식물에서 기인합니다. 또한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돈으로 한 산하면 8조원이나 된다고 정부가 방송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들을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1970년대 초까지 배고픔의 고통과 보리고 개를 꺾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배고픔의 고통을 잊고 있는 모양입니다.

출가하여 접어 들어온 행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는 교재 가운데 아운(阿雲)스님의 <자경문(自警文)>이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사짓는 농부도 좁고 배고픔의 고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 한포기도 심지 않고 밥을 먹는 일반인들이 쌀 한 톨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 연간 8조원

"발우공양 정신 새기자"

떠남을 근본으로 삼고, 이 몸과 마음 다스리는 좋은 약 삼아 무척힘의 위엄은 도 이루기 위해 마땅히 이 음식을 받아먹으리라 하는 다섯가지를 살펴 관하는 것이 바로 오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몸을 지탱하기 위한 약으로 하루에 한번만 공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주물인 음식을 아껴서 적당히 먹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루 사시(오전 11시)에 한 끼만 먹도록 계율로 정하셨습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하시길 "하늘 사람들은 아침에 먹고, 부처님과 성인은 사시에 공양하고, 귀신은 밤에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비구들은 부처님 법을 배우기 때문에 하루 한번만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제가 있어 겨울철에는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서 행하지 못하지만 남방불교권의 스님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종식 계율을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 있지요.

사찰에서 신도들이나 일반인들이 공양할 때 절대로 음식물

신행캘린더

9월 13일 (목)

■보탑사 산사음악회=충남 보탑사는 오후 7시 30분 야외무대에서 '월드컵 성공 기원'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043)533-0206

■천수경>강의=자비행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태원 법사의 <천수경> 강의를 마련한다. 강의는 10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실시된다. 062)222-1165

9월 14일 (금)

■환경경청회=정토회는 정오 서초동 정토회관 강당에서 제15차 환경경청회를 개최한다.(02)587-8994

■'영터리 사랑꾼' 공연=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는 29일까지 아리랑 아트홀 개관을 기념해 아동극 '영터리 사랑꾼'을 무대에 올린다.(02)942-0636

9월 15일 (토)

■청량사 음악회=청량사는 오후 6시 경내에서 개산 1338년을 맞아 '천년의 속삭임-바람이 소리를 만나면'을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054)672-1446

■해국스님 초청법회=대전 보현문화회관은 오후 3시 회관 2, 3층 살법전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을 주제로 해국 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042)624-6555

■BBS기림빈기합창단연주회=불교방송은 오후 7시 KBS 홀에서 개국 11주년 기념 제4회 불교방송 기림빈기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02)705-5305

■선학회 월례발표회=한국선학회는 오후 1시 30분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9월 월례발표회를 실시한다. 발표 논문은 '승대 일제종종밀비판', '조당집 번역의 문제점' 등.(02)2260-3140

■티베트 바로 알기=티베트 생각(Think Tibet)은 오후 3시 명륜동 영상 카페 지오에서 '티베트 바로 알기'를 주제로 일반인도 참여 가능한 모임을 개최한다.(019) 329-8973

9월 16일 (일)

■부안지역 불적담사=터사랑은 꽃창살 문양으로 유명한 내소사와 채석강, 개암사를 둘러보는 부안지역 불적담사를 실시한다. 강사는 역사탐방연구회 정인식 씨.(02)725-1284

9월 19일 (수)

■불교장례 특별강좌=수원 포교당 염불봉사단 목련회는 오후 1시 대한불교연화회 유재철 강사를 초청해 불교장례의식을 주제로 특별강좌를 실시한다.(031)255-2692

생활속의 불교

노예의 삶, 주인의 삶

누구 한 사람 예외없이 빈 손 들고 이 세상에 나왔다. 빈 손으로 와서는 평생을 기울여 그 빈 손을 채우려고 노력하며 산다. 권력을 잡으려고, 돈을 벌려고, 명예를 쥐려고 애를 쓴다.

그것을 우리는 욕망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 욕망의 충족을 위한 노력이 법적이거나 사회적 일탈이 아닌 한, 다시말해 사회적 합의라는 게임의 법칙을 준수하는 한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 찬사와 존경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욕망을 향한 집념이 나를 지배하고, 돈이나 명예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한다면 나의 삶은 그것의 노예와 다름없게 된다.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할 돈, 권력, 명예가 어느

새 주인이 되어 내가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꼴이 되고 만다.

인간이 그 무엇의 쓰임새가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이해, 대수롭지 않은 일들, 별로 귀중하지도 않은 물건까지 나를 구속하는 주인 노릇을 할 때가 많다. 가령 새 옷 한벌 해 입었을 때, 내가 새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새 옷이 나를 입고 있는 것 같은 경우가 허다하다.

사람은 누구나 먹었으면 배설해야 한다. 먹고 배설하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다. 이치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가졌으면 주어야 하고 풀 줄 알면 풀 줄도 알아야 한다.

갖는 도리만을 좇아서는 살 수 없다. 운이 좋아서 평생을 쥐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갈 때는 싫어도 다 놓고 빈 손으로 간다. 울 때 그러했듯이 갈 때도 빈 손이다. 고로 주는 도리를 좇아 사는 게 주인된 도리다. 갖는 도리는 노예의 길이고 주는 도리는 주인의 길이다.

갈 때 어차피 빈 손일 수밖에 없으니 지금 쥐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일 뿐이다.

나는 일시적인 관리자이다. 그러기에 불가에서는 본래 나의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고 가르친다.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한다. 노예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라고 한다. 대장부다운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가라고 한다.

■龍眼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만을 공급하는

성불 조각원

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인 성불 조각원은 모든 작품들을 옛 전통 기법으로 재연해 만듭니다.

또한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 최고의 작품만을 최저의 가격으로 모든 불사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불심으로 일구어진 불자기업입니다.

※ 모든 불사현장에 쓰여진 모든 작품들은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문의

033)263-1102
H.P 017)379-0590

* 전국대리점모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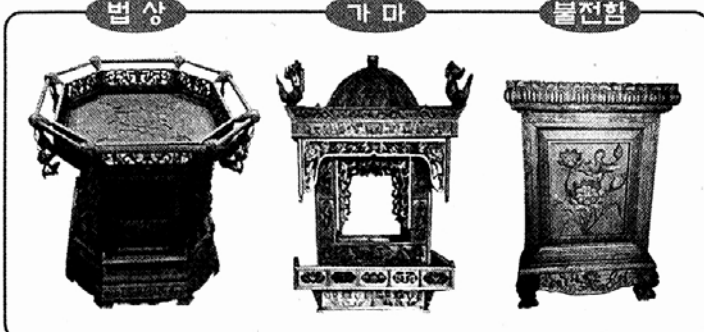
목불상



법상

가마

불전함



특별 할인가

달마재목

달마대사의 원력을 느껴 보십시오

- 대 ◆ 가격 : 9만 5천 원
- 중 ◆ 가격 : 7만 5천 원
- 소 ◆ 가격 : 5만 5천 원

경상

전통 짜집기 공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 크기 : 가로 100cm
폭 37cm
높이 45cm
- ◆ 가격 : 29만원

